

## News

### 은행권, 불붙는 기업금융 경쟁... “가계대출 제한 돌파구 찾아라”

조선비즈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총량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 대출 위축 가능성 높아져... 돌파구로 기업 금융 찾아... 주요 은행들, 조직 개편과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영업력 강화 추진  
신한은행의 기업영업단장 제도 확대 시행, KB금융의 기업대출 목표치 전년 증가율 대비 200% 목표 제시 등...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 위주로 기업대출 시장으로 확장

### 중신용 이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8.6조 대출

연합인포맥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공급한다고 밝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초저금리로 각 1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오는 24일부터 비대면 신청 및 접수 예정

### “주담대도 비대면으로”... 은행권 경쟁 치열

세계일보

은행의 디지털화 속도 빨라지며 주담대 비대면 상품 경쟁 치열... 신한은행, 비대면 주담대 이벤트 실시... 작년 7월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주담대 서비스 출시 발표 이후 분위기 전환  
은행 점포 축소 현상과도 무관치 않아... 은행 가계대출 핵심상품인 주담대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더 잘 팔지가 향후 핵심 과제...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도 영향력 강화 일환으로 해석

### 신한금융, 블록체인·NFT 기업에 50억 투자

머니S

신한금융,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를 통해 NFT 기술 기업 블록오디세이에 50억원 투자  
블록오디세이는 최근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권 최초 NFT 발급 관리 서비스 론칭해... 이번 투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SI펀드는 12개 기업에 총 1,780억원 투자

### 손보업계 “자산관리 등 ‘생활금융플랫폼’ 구축”

동아일보

손보업계, 올해 자산관리, 헬스케어, 차량관리 서비스 등 연계된 생활·금융플랫폼 구축에 나서... 기존 보험의 비합리적인 관행도 개선 예정  
이 같은 플랫폼 운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설 방침...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기로...

### 라이나생명 자회사형GA 라이나금융서비스 대면영업 중단...“타 GA 이동 물색”

한국금융신문

라이나생명 자회사GA인 라이나금융서비스, 대면영업 중단... 설계사들은 타 GA로 이전하는 방안 등 검토 중  
처브그룹 매각을 앞두고 라이나금융서비스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 리더스금융 인수가 무산되며 라이나금융서비스 조직규모 커지지 않아... 전속 TM 이전 이야기도 나와...

### 선두업체 미래에셋이 새해부터... 증권사, 역대급 실적에도 희망퇴직 바람

머니S

증권업계, 현재 희망퇴직 바람 진행 중... 40~50대 직원들 대상으로 자율적인 환경 속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  
미래에셋증권, 2019년 초 희망퇴직 실시한지 3년 만...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6년 만에 단행... 업계 관계자는 역대급 실적 달성했기에 희망퇴직 실시 부담이 적을 것 언급

### 설마 했는데 주식 팔고 회사 떠나겠다...발각 뒤집힌 카카오페이증권

한국경제

카카오페이증권, 법인영업본부 임직원들이 대규모 이직에 나서... 일각에서는 이들이 퇴사와 함께 우리사주 처분에 수천~수억원의 이익 챙길 것으로 보아...  
다만 업계에서는 우리사주 처분 보다는 카카오페이증권 조직 개편 소식이 이직 택했을 것이라는 관측... 이로써 카카오페이는 또 한번 타격 받아...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